

이슈 판



성폭력 범죄 개인택시기사 운전자격 취소 '적법'

법원 "여객 안전한 운송 도모에 필요"

성폭력 범죄 개인택시기사의 운전자격 취소 처분이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이기리)는 A씨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경제주행' 혐의로 2018년 7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됐다.

광주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와 87조를 이유로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광주시의 처분이 범죄의 구체적인 행위나 죄질 등을 감안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소한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에 위반된다는 등의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대중교통수단인 택시영업의

특성상 택시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성범죄자에 대한 운수종사자 자격을 제한할 공익상의 필요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되면 다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운수종사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점 등을 보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돼 헌법을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범죄를 범한 운수종사자의 운송사업면허 취소를 통해 대중교통의 안정성에 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매우 크다는 점에 비춰보면 행정처분의 기준을 엄격히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A씨가 입게 될 재산상 손해 등을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의 면허취소 처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보다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3년 동안 집에만 있었어요”

이름도 낯선 '이주배경청소년' 20만명 시대
정부, 내년부터 포용적 사회 실현 위해 지원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지난 2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아 이주배경청소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현재 여가부는 서울 종로구에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 등을 운영하며 한국어교육 및 취업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이주배경청소년 1720명이 26개소에서 한국어교육을 받았으며, 진로 및 직업교육 각각 5개소 183명이 도움을 받았다. 집단상담도 493건이 있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일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찾아 다문화가정, 북한이탈 청소년 등과 대화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주배경청소년들은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웠다"고 애로사항을 전했고, 이 장관은 더 세심한 지원을 할 것을 약속했다.

이주배경청소년 A씨(여·19)는 2014년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했는데, 체류자격이 불안하고 한국어 수준이 낮아 진학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인해 3년 동안 집에 있었다.

그러던 중 2017년 지인의 소개로 '이주배경청소년지원센터'를 찾아 맞춤형 진로지원 프로그램인 '무지개job야라' 등에 꾸준히 참여했다.

그는 직업교육 프로그램인 '내일을 잡아라'에 참여해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고 센터에서 운영하는 카페에서 훈련생으로 일하며 사회경험을 쌓았다. 이후 A씨는 자기소개서를 준비해 일자리를 찾고 마침내 자립에 성공할 수 있었다.

정부가 이주배경청소년을 위해 입국 초기부터 취업, 자립까지 필

요한 서비스를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7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이주배경청소년은 지난해 기준 20만명을 넘어섰다.

'이주배경가구'는 가구주나 배우자의 출생지 국적 또는 현재 국적이 한국이 아닌 가구를 의미한다. 이주배경청소년은 그 가구주의 자녀이며 24세 이하인 구성원은 이주배경 아동·청소년으로 분류된다.

이주배경청소년은 최근 꾸준히 증가 추세인 '다문화가족' 청소년보다 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닌다. 이주배경청소년에는 A씨와 같은 중도입국청소년, 북한이탈(새터민) 청소년, 다문화가족 청소년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주배경청소년은 특히 입국 초기 문화적 차이, 언어장벽, 사회적 편견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5·18구속부상자회 새 집행부 출범...정상화 길 나선다

신임회장에 문홍식 미래로개발 대표...72% 찬성



7일 오후 518구속부상자회가 새 집행부를 선출해 문홍식 미래로개발 대표(오른쪽에서 여섯 번째)와 신임 이사진이 손을 높이 들고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5·18 구속부상자회가 새 집행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정상화에 나선다.

5·18구속부상자회는 임원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를 열고 문홍식

5·18구속부상자회 감사는 이운주씨(59)와 정찬우씨(60)가 선임됐고 단체 정상화에 힘쓰는 5·18구속부상자회 혁신위원회 상임위원장 10명이 이사진으로 선출됐다.

선출직인 회장과 감사, 이사진의 임기는 3년이며 2022년 12월 7일까지 활동한다.

문홍식 5·18구속부상자회 대표는 "5·18민주화운동 40주년을 앞두고 구속부상자회의 역사를 새로 쓰게 됐다"며 "기존 과행으로 얼룩진 구속부상자회 명예를 회복하고 정상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우선하는 것은 화합"이라며 "분열을 야기한 전임 집행부 관계자에 대해서는 이사회 회의를 거쳐 윤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찰무마’ 檢수사, 청와대 정면 겨냥...‘文캠프’로 넓히나

檢, 천경득 행정관 조사... 조국 소환 후 'a 주목'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시 관련 업체들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개인비리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가 '감찰무마 의혹'을 타고 금융위원회를 넘어 결국 청와대로 들어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최근 천경득 선임행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에게 유 전 부시장의 감찰 중단을 요구한 경위를 조사한 사실이 전날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천 선임행정관은 2012년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에서 '문재인 편

드'를 관리하는 펀드운영팀장을 지냈다.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당 대표 비서실을 거쳐 2017년 대선 캠프에서는 문 대통령 후원회 대표로 활동하는 등 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다.

천 선임행정관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 김경수 경남지사, 김 지사도 검찰조사 대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소환조사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청와대 측은 자체조사 결과 유 전 부시장과 천 행정관, 윤 실장, 김 지사가 함께 있는 단체 텔레그램방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검찰이 천 선임행정관을 조사한 이상, 윤 실장과 김 지사도 검찰조사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윤 실장과 김 지사 역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사들이다.

한편, 검찰은 하명수사 의혹의 최초 제보자로 지목된 송병기 울산시 부시장을 6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과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송철호 울산시장의 소환조사도 머지않아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모두, 안녕하세요?

우리 민척이요... 자폐치료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놀랐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인해 알게 돼서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덕분에 안녕이랑 말을 다시 돌아옵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일반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말에는 검진 7인이 혼잡하오니,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국가건강검진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보건복지부

129

h-well 국민건강보험

1577-1000